

‘기울어진’ 통합특별시의회...정치·행정 진통 불가피

6·3 지방선거 D-43

선거구 확정...광주시의회 고작 4명 증원
전남과 불균형 '표의 등가성' 논란 여전
출범 후 도농 예산·자원 배분 갈등 예고
일각 '재획정 특별선거' 대안까지 거론
정교한 '정치적 합의·제도적 보완' 절실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앞두고 이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초대 '통합특별시의회'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선거구 획정이 광주와 전남 사이의 극심한 대의성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합 초기부터 심각한 정치·행정적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7면
20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4곳(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

는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증원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절감' 증원으로는 광주와 전남 간의 인구 대비 대표성 격차를 좁히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통합의회 전체 정수 91명 중 전남은 63석(지역구 55석)을 차지하는 반면, 광주는 28석(지역구 24석)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전남 의원 1명이 약 2만9천명을 대변할 때 광주 의원 1명은 약 5만3천명을 대변해야 한다. 4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유권자의 한 표 가치는 여전히 전남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2대1)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선거 이후 당선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다. 민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정치 개혁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이 단 4명 증원에 그쳐 통합에 따른 현저한 대의성 불균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기권 사유를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을 노리는 민 의원의 입장에서 광주권역이 통합의회 내에서 '소수파'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의석 수 불균형은 단순한 대의성 문제를 넘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실질적인 '자원 배분 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예산 심의권과 국가 이익 사무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전남 출신 의원들이 농어촌 인프라 확충과 지방 소멸 대응을 우선시할 경우, 광주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가 광주 지역 사회를 덮고 있다. 실제 통합 이후 주청사 위치 선정, 균형발전기금 배분 비율 등을 두고 '도시(광주)'와 '농어촌(전남)' 간의 시각차는 극명한 상황이다. 당장 전남지역에서 "인구가 아닌 면적과 낙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양 지역 간 사활을 건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5월 정신 헌법 수록” 5·18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알림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3강

김동규 성악가 '이 장면을 아시나요?'

오늘 오후 6시30분 남구 어반브룩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는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3강을 21일 개최합니다.

3강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남구 어반브룩에서 김동규 (사진) 성악가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개최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주역을 맡으며 세계 무대를 누빈 바리톤 김동규의 단순한 클래식 공연이 아닌,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삶의 철학과 품격을 나누는 인문학 강연으로 꾸며집니다.

수십 년간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그의 열정적인 삶과 깊이 있는 통찰은 청중들에게 새로운 울림과 에너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 예술을 넘어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무대, 김동규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2026년 4월21일(화) 오후 6시30분
▲장소=광주 남구 어반브룩
▲강사=김동규 성악가
▲주제='이 장면을 아시나요?'

“이번엔 꼭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하라”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는 20일 “국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즉각 개헌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서슬 퍼런 총칼에 맞서 끝까지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였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열망이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부름에 대한 대한민국의 마땅한 응답”이라며 “5·18이 보여준 '대동 세상'은 이제 세계가 함께 구현해야 할 '평화공존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계승위원회는 “국경을 넘어 세계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의 자랑분'”이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신계승위원회는 국회를 향해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의 보루'

정신계승추, 국회 개헌안 의결 촉구
23일 본회의 때 국회 앞 집회 예고
28일엔 600명 참석 대규모 결의대회

임을 선언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즉각 개헌안을 의결하라”며 “반인륜적 역사 왜곡을 근절하고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신계승위원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피할 수 없는 책무”라며 “140만 광주 시민과 함께 국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23일 본회의장 앞에서 촉구 집회를 개최한 뒤, 28일엔 국회 본청에서 500-600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한 최종 기한인 5월10일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신계승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치권 설득 상황에 대해 “야당 지도자, 정치인들과 개별적으로 여러 대화를 나눠보면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화를 위한 개헌은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굳이 왜 서두르느냐는 인식이 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광주를 찾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50분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강 시장도 동행한다. /변은진 기자

Today

'남도 천년사찰로 나를 찾는 여행 떠나요'	5면
광주문인협회 문화마당	15면
도약? 추락?...KIA 실력 검증 시험대	16면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이제는 (기회) 특별시